

정보통신일지

트윈타워 준공식 (10월 20일)

럭키금성그룹(회장 구자경)은 20일 상오 신축사옥인 여의도 트윈타워빌딩 준공식을 가졌다. 이 빌딩은 지난 83년 6월 착공이후 4년 4개월만에 완공됐으며 연건평 4만8천평 규모의 지상 34층 지하 3층의 동서관 2동으로된 국내 최초의 인텔리전트빌딩 시스템을 갖추었다.

한글코드 변환 운용 (10월 20일)

삼보컴퓨터는 제닉스 운영체제(OS)의 N바이트 한글코드를 MS-DOS의 2바이트 한글코드로 바꾸어 주는 기술을 개발.

ISDN기술개발 사업계획(안)보고서 발표

(10월 21일)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통신정보 기술단이 내 놓은 이 보고서는 기존 통신망 선로를 이용한 협대역 ISDN을 구축하기 위해 12가지 기본기술중 교환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분야의 기술개발에 내년부터 91년까지 총 7백47억 원의 개발자금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AT기종 신 PC개발 (10월 22일)

동양정밀은 기존 AT기종보다 처리속도가 1.6배가량 빠르며, 크기는 3분의 2정도이며, 가격은 20%가량 저렴한 PC를 개발.

한국형 퍼스컴 OS개발 추진 (10월 22일)

한국컴퓨터연구조합(이사장 구자학)은 퍼스컴용 OS개발이 88년도 특정 연구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금성소프트웨어를 비롯 15개 조합회원사와 시스템공학센터가 공동으로 정부 출원금 5억 2천 6백만원등 총 연구개발이 18억 9백만원을 투입 내년 3월부터 2년에 걸쳐 16비트 및 32비트용 OS개발작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컴퓨터 가이드북 발간 (10월 23일)

한국전자공업진흥회는 87~88한국컴퓨터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4백 94페이지로 된 이 가이드북에는 컴퓨터 각 회사별 공급기종, 주변기기업체별 공급기종, 소프트웨어업체별 개발품목등이 소개돼 있다.

CAD/CAM 센터 설립 (10월 23일)

삼성데이터시스템은 자동화 분야에 CAD/CAM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CAD/CAM센터를 설립, 설계기술요원에 대한 교육실시와 공장자동화의 효율화 방안 및 문제점 검토등 컨설팅업무, CAD/CAM 소프트웨어 개발작업등을 수행키로 했다.

100만원대 신형 팩시밀리 개발 (10월 24일)

대우통신은 전화기가 내장되어 있고 원터치 송신과 40개소까지 단축다이얼의 이용이 가능한 1백 90만원의 신형 팩시밀리를 개발.

30만원대 전자 타자기 개발 (10월 24일)

(주)라이카가 일본 실버리드사와 기술제휴로 개발한 이 타자는 한글 영문등 21가지의 다양한 서체로 타이핑할 수 있으며 자주 사용되는 문장이나 양식은 이를 기억시킨 편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

한글처리능력 SW내놔 (10월 24일)

두산컴퓨터는 미 DEC사와 공동으로 완벽한 한글능력을 갖춘 한글 VMS OS(운영체제)를 비롯 한글RDB 데이터 관리시스템, 한글FMS양식 관리시스템등 VAX 컴퓨터용 기본 소프트웨어를 개발.

헝가리등 43개국과 텔렉스교환 자동화 (10월 26일)

전기통신공사는 88서울올림픽의 완벽한 통신지원과 국내 텔렉스 가입자의 이용 편익을 위해 그동안 국제 텔렉스 교환원을 통해서만 교신이 가능했던 헝가리, 앙골라등 세계 43개국 70개 지역과의 텔렉스 교신을 완전 자동화.

“자동차업계 VAN국제 세미나” 개최 (10월 29일)

자동차업계 상호간 정보교환을 원활히 해 나가기 위한 자동차VAN(부가가치통신망) 구축에 대한 국제 세미나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한국데이터통신이 주최하고 정보통신진흥협회와 매일경제신문사가 후원한 이 세미나에는 현대자동차등 국내 자동차업계와 정보통신관련업체

에서 300여명이 참석했다.

컴퓨터 입력자체 표준화계획 수립(10월 28일)

정부는 내년도에 컴퓨터 입력을 위해 사용되는 한글 및 한자의 자체를 표준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진청은 현 16 × 16개로 돼 있는 문자표시를 위한 기본도트(DOT)수를 30 × 30개로 표준화 하기 위한 작업을 내년부터 착수키로 했다.

문서등 작성용 SW 2종 개발(10월 29일)

삼성전자는 국내 실정에 맞는 문서작성 및 계산표작성 용 소프트웨어 2종을 개발했다. 삼성전자가 이번 개발한 OA-글벗은 한글, 한자, 영문 문서작성용 소프트웨어로 SPC-3000A 컴퓨터 본체에 패킹이 가능하며 다양한 도움말 기능제공, 문서의 전체, 일부분 복사, 문서작성용이 등이 특징이며, 또 OA-셈벗은 화면위에 화면이 표시돼 더많은 정보를 나타낼 수 있으며 숙지도에 따라 단계별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

32비트 슈퍼 마이크로컴 개발(10월 29일)

삼성반도체통신이 개발한 이컴퓨터는 OS로시스템V, 유닉스를 채택, 분산처리 기능 및 멀티프러세싱기능을 강화한 분산 파일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IBM VAX등 타기종 범용컴퓨터와 접속이 가능하다.

중앙전산 전시장 개설(10월 29일)

정부는 행정전산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3회 중앙전산 이용 기술개발 경진대회 및 전시회를 열었다. 이 대회의 대통령상인 금상은 황인수, 박상희, 김재열씨(중앙전자계산소)등 3명이 공동 출품한 “청사출입자 관리시스템”이 차지했다.

제7회 국제 컴퓨터, OA, 통신기기, 로보트전 출품신청 접수(11월 2일)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방송공사(KBS)는 내년 4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제7회 국제 컴퓨터, 사무자동화, 통신기기, 로보트 전시회(KIECO 88)개최를 위해 1987년 11월 2일부터 1988년 2월 10일 까지 출품신청을 접수한다.

美의 지적 소유권 강좌(11월 2일)

특허청 국제특허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발명특허협회가 주관하는 “미 지적소유권 전문가 초청 강좌”가 11월 2일부터 4일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제특허연구원에서

개최됐다.

정보 DB 시스템 개통(11월 3일)

한국전기통신공사는 텔레스정보데이터베이스 “KTA Information 시스템”을 개통 3일부터 전세계 160만 텔레스가입자들을 대상으로 88서울올림픽을 비롯한 한국의 각종 정보 및 그래픽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범용컴퓨터 호환 프로그램 개발(11월 3일)

서로 다른 컴퓨터 기종간 프로그램언어 및 데이터를 호환 사용할 수 있도록한 범용전환프로그램이 군 전산실팀에 의해 개발.

일반감시용 SW 한글작업 완료(11월 4일)

삼일경영연구원은 전산처리된 업무감사에 사용되는 일반감사용 소프트웨어 “오디트팩 II”的 한글작업은 완료.

전문설계 시스템 개발(11월 4일)

금성계전은 일반파스컴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 CAD(컴퓨터 이용설계)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인텔리전트 드래프팅시스템(IDS-16)을 개발.

영상분석 시스템 개발(11월 4일)

삼성반도체통신은 마이크로 컴퓨터 및 퍼스널컴퓨터(PC)에 연결, 사용할 수 있는 영상분석 시스템을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위성으로부터 수신한 자료를 지표등의 상태에 따라 이를 색으로 구분 표시할 수 있으며 길이, 면적등도 계산할 수 있다.

한글 Rdb, FMS 개발(11월 5일)

두산컴퓨터는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인 Rdb와 양식관리시스템인 FMS의 한글화에 성공.

국산통신기기 품질보증 강화(11월 5일)

한국전기통신공사는 국산통신기기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시험검사업무를 품질제도로 전환시켜 제품에 대한 품질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는등 품질보증제도를 강화.

컬러판 그래픽기능 갖춘 한글, 한자보드 개발(11월 7일)

삼보컴퓨터가 개발한 이 컬러보드는 한글문자를 하드웨어적으로 처리, 고해상도 한글, 한자를 빠른 시간내에 표

현해 주며 기존의 어떠한 그래픽보드와도 연결사용이 가능하다.

보급형 CAD, CAM 개발(11월 7일)

전자통신연구소가 개발한 이 보급형 CAD, CAM은 대화형 도면처리 시스템 엔지니어링 이식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한글전자사서함 대체 서비스 계약(11월 10일)

한국데이터통신은 일본 콤네스사와 한글전자사서함의 일본내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항공여행 VAN업계 설립(11월 11일)

항공여행분야에서 부가가치통신망(VAN)사업을 수행할 한국여행정보(주)가 한국데이터통신(주)와 대한항공에 의해 공동으로 설립될 계획이다.

한글운영체제 고안(11월 12일)

왕컴퓨터코리아(대표 조선형)은 정부표준 2바이트 한글 코드를 채택한 왕VS 시스템 OS(운영체제)를 개발했다.

한글, 한자 입출력 가능한 새 워드프로세서 개발(11월 12일)

제철엔지니어링(대표 장세훈)은 한글, 한자, 영문 입출력이 가능한 워드프로세서를 개발했다. 이 워드프로세서는 메뉴방식 및 도움말 기능을 채택, 초보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류작성시 많이 사용되는 사각형(박스)을 두 꼭지점만 지정하면 자동으로 그려지도록 했다.

퍼스컴 통신망 구축(11월 13일)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일반전화망을 통해 PC통신망을 구축, 비디오텍스 정보검색 등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첨단 전자식타자기 개발(11월 16일)

금성사가 개발한 이 타자기는 A4용지 20장 분량의 내용을 기억시켜 수정 복사할 수 있고 타자한 내용을 액정표시판(LCD)에 한줄씩 표시할 수 있다. 또, 5가지 글자체 타자, 기억된 내용 양방향 인쇄, 문서명 30개 기억, PC의 프린터로 사용가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컴퓨터 원격제어감시기 개발(11월 16일)

배월락엔드키는 전기전력선에 반송파 데이터 통신기능

을 이용해 빌딩자동관리용(상품명:비질랜드)을 비롯, 외과경비용(비질랜드 PP시스템), 가정자동화용(폴리콤) 등 3종의 컴퓨터 원격제어 및 감시 시스템을 개발했다.

용산에 소프트웨어단지 조성(11월 17일)

과기처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법에 의한 SW개발 환경조성 사업과 관련, SW관계 기관, 설비 및 생산성 재고를 위해 전문개발단지로 용산전자전기 상가를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자공학회 워크샵(11월 18일)

대한전자공학회(회장 서정욱)는 17, 18일 이틀간 뉴월드호텔에서 세계 유명텔리콤 IC제조회사의 전문가를 초청, 텔리콤과 ISDN칩 응용워크샵을 개최했다.

기정자동화시스템 개발(11월 8일)

동양정밀은 외출중에 집에 전화를 걸어 밥을 짓게 할 수도 있고 화재나 도난, 가스누출사고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정자동화(HA) 시스템을 개발했다.

CAD 소프트웨어 개발(11월 19일)

금성사는 미 칼마사의 CAD/CAM(컴퓨터 지원설계 및 생산)시스템을 활용하여 플라스틱 금형설계용 CAD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다기능 패션 전화기 개발(11월 20일)

금성통신은 인체공학을 응용한 다기능의 패션전화기를 개발했다. 이 전화기는 송수화기를 들지 않고도 다이얼하는 온혹다이얼 기능, 통화녹음기능, 7개 전화번호의 메모리에 의한 원터치 다이얼 기능을 갖고 있다.

공중통신망접속 비디오텍스 개발(11월 20일)

현대전자(대표 정몽헌)는 북미 표준방식의 옵션카드형 비디오텍스를 개발했다. 이 비디오텍스는 IBM퍼스널컴퓨터와 호환기종의 PC에 별도의 장치없이 사용, 디코더의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고 별도의 모델없이 공중통신망이 가능하다.

지적소유권 세미나 개최(11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상품모조방지위원회 주최로 지적소유권세미나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지적소유권 개발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는 지적소유권 보호와 관련 대외통상압력이 늘어나는 현시점에서 문제점과 전망을 검토하고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